

대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류지성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대학은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한국대학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대학 진학률이 83%를 넘을 만큼 대학은 충분히 많지만 정작 학생이 입학할 원하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충분한 대학공급 가운데 극심한 초과수요인 셈이다. 산업은 대학교육의 현장적합도가 낮고 대졸 신입직원에 대한 재교육 부담이 크다고 불멘소리를 한다. 연구력은 양으로 볼 때는 세계 12위이지만 질은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한국대학이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말 열심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애써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선진수준과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대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선진대학은 우리보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은 이제 단지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대학은 다양한 교육목표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획일적인 교육목표에 예속되어 경직된 체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학은 대중화, 보편화된 교육기관이다. 고교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입학하고 4학년을 마친 대학졸업자의 90%이상이 사회로 진출하고 다양한 직업을 선택한다. 교육 대중화 시대에 좋은 대학이 되려면 사회와 학생수요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반직업인, 전문가, 학문연구자 양성 등 다양한 교육목표로 학생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표 1. 2008년 4년제 대학 졸업자 진로현황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기타
인원(명)	282,670	170,878	27,072	5,461	74,135	5,124
비율(%)	100	60.5	9.6	1.9	26.2	1.8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8취업통계분석자료집
 주: 기타는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미상을 포함

대학이 다양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진로경로에 따라 다양한 학사트랙 즉, 직업트랙(vocational track), 전문트랙(professional track), 학문트랙(academic track) 등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준비시켜야 한다. 교양과 전공도 학사트랙별로 유연한 조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졸업 이후 취업 및 사회진출을 하는 학생은 기초교양과 함께 직업분야의 전공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전문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학부에서는 폭넓고 심화된 교양교육과 전공기초지식을, 대학원에서는 전공 심화를 충실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은 이제 연구만큼이나 교육성과를 높이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대학은 그동안 교수임용, 승진, 성과 인센티브 모두가 연구실적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 덕분에 연구의 양은 세계적 수준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은 부실해졌다. 교수는 강의 준비에 소홀하고, 학생은 방목(放牧)되고 있다. 학생은 취업을 위해 소위 스펙을 갖추는데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지만 정작 미래 산업사회에 필요한 교양과 전공지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느슨한 학사운영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전공과목의 성적은 B 이상이 77%일 정도로 학점 인플레이가 심각하다.

대학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및 교육전문가의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제도, 교수학습센터를 통한 학생 학습지원, 학생의 학습역량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은 교수의 일방적인 대학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량이 엄청나면서도 그 효용기간은 짧은 지식사회에서는 교수가 지식을 축적해서 가르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배우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교수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학생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는 학습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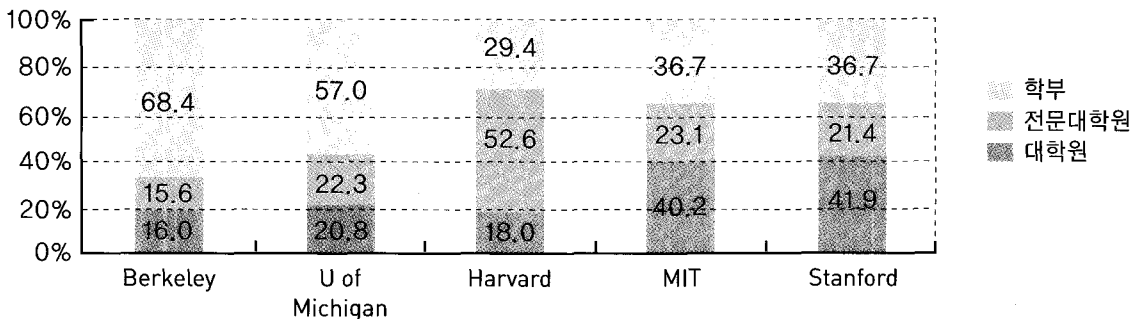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주요대학 졸업학위(2006-2007)

자료: University of California Annual Accountability Report (<http://www.universityofcalifornia.edu/accountability/>)

학의 교양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현재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흥미 위주의 과목, 시간강사 중심의 운영, 전공과 연계된 교양 교과목에 집착하는 전공 이 기주의 등으로 교양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학문 분야(discipline)보다는 주제(subjects)를 강조하면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회생활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수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하버드대학의 2009년 교양교육혁신은 이런 점에서 한국대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융복합적인 사고와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학문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것도 시급하다. 21세기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전에는 서로 무관하던 이질적인 지식과 기술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이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통해 총체적인 조망과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학문적, 학제적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기존의 독립된 학문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한다. 교수들을 전공 구분이 없는 Faculty System에 소속시키고, 교수 각자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대학이 나와야 한다.

넷째,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 20세기 산업화시대에서 필요했던 인력은 대부분 학부 졸업의 범용형 인재이지만,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석·박사 R&D인력과 문제해결형 실무전문인력(학+석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대학의 경우, 비즈니스분야의 석사학위자가 지난 10년간 54.5%가 증가하고 전체 석사학위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주요 대학 중에는 대학 졸업자 중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학위자의 비중이 꽤 높은 대학이 많다. 한국대학이 21세기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감소하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부의 비중은 대폭 줄이고, 일반·전문대학원을 제대로 육성하는 학사체제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특수대학원이 중심이 되는 대학원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디자인, MBA, 로스쿨처럼 실무형 전문가, 진정한 프로페셔널을 배출하는 다양한 전문대학원 양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대학이 나와야 한다. ■

필 / 자 / 소 / 개

류지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교육혁신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과부 WCU위원,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위원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대학혁신: 7대 전략유형』(공저)이 있으며, “대학혁신을 위한 제언”, “두뇌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고급두뇌 확보방안”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 교육혁신, 대학발전전략, 미래인재 육성 등이다.

